

기독교 윤리실천운동



2019 / 03-04
열매소식지

특집 “청년, 그리고 기윤실”

청년운동본부 #청년위원회 #자체휴강프로젝트_나를찾는토요일
좋은사회운동본부 #청년부채ZERO캠페인 #청년_목소리

CONTENTS

특집	“청년, 그리고 기운실” 청년운동본부 #청년위원회 003 청년운동본부 #자체휴강프로젝트_나를찾는토요일1 -글쓰기 편 006 청년운동본부 #자체휴강프로젝트_나를찾는토요일02 -영상만들기 편 008 좋은사회운동본부 #청년부채ZERO캠페인 6차 참가자 모집 010 좋은사회운동본부 #청년_목소리 012
더 높은 책임성	자발적불편운동본부 교회와 함께하는 캠페인 봄호 '미세먼지와 맞서는 그리스도인' 014 교회신뢰운동본부 '좋은나무' 삶이라는 극한직업에 나선 이들을 위한 응원가 016 사무처 3.1운동 100주년 기념예배와 집담회 019 사무처 신임 상임집행위원 인사말 022
더 깊은 투명성	1·2월 재정보고, 후원자명단 023
더 넓은 공공성	활동보고 활동계획 / 바른가치운동본부-평신도 연합세미나 광고 026 전국기운실협의회 소식터 027 청년운동본부 '나를찾는토요일'03, 04 광고 028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섬기는' 사람들



이사 백종국(이사장) 강석창 강영안 권장희 김양재 김홍섭 문애란 박재우 박종근 방선기 배종석 송인수 유해신 이문식 이의용 임성빈 정병오 전재중 정애주 정현구 조홍식 주광순 한경화 홍정길 감사 황병구 자문위원회 손봉호(위원장) 박상배 김경섭 김일수 라영환 손인용 이동원 이장규 이진오 황준성 공동대표 정병오 배종석 정현구 상임집행위원회 정병오(공동대표, 위원장) 배종석 정현구(공동대표) 신동식(자발적불편운동본부장) 조성돈(교회신뢰운동본부장) 이상민(좋은사회운동본부장) 목광수, 박선영(바른가치운동본부장) 김학수(청년운동본부장) 고재길(기독교윤리연구소장) 김진우(상집위원) 김상덕(상집위원) 기독교윤리연구소 고재길(소장) 임낙형(부소장) 성신형 송준인 신원하 이상원 이장형(운영위원) 강진구 김동춘 김승곤 노영상 임성빈 추태화 홍순원(연구위원) 사회복지위원회 조홍식 이만동(공동위원장) 이재민 이주환 조태례(부위원장) 라창호(교회상 운영위원장) 강정규 고기숙 권오용 김미혜 김동배 김정진 김수정 김현호 두재영 두준기 박지영 송시섭 신정윤 오세란 오창섭 원명순 이무영 이영분 장동한 장원중 교사모임 한성준(대표) 김홍업(부대표) 김애희(사무국장) 권순홍 김중대 김진우 노명원 서현희 우희정 이미나 이화진 임현경 정연석 천무현 최나영 사무처 김현아 박제민(팀장) 윤신일 조희준 최진호(간사) 전국기운실협의회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서울 울산 익산 인천 전남 전주 진주 청주 / (준비지역) 정읍 제주

기독교윤리실천운동 2019년 3~4월호 통권 269호
소재지 04382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54길 30, 세대빌딩 401호
전화 02-794-6200 팩스 02-790-8585
E-mail cemk@hanmail.net 홈페이지 www.cemk.org
발행인 백종국 발행일 2019. 4. 1
편집인 정병오 편집 김현아 디자인 정호연

보고기간 2019년 2월 12일~2019년 3월 23일까지의 활동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기타 본 소식지는 창조세계를 돌보는 마음으로 재생종이에 인쇄했습니다.

표지종이는 고지율(재생필프 함유율) 55%(사용전)의 양코르지이며, 본문종이는 고지율20%의 그린라이트지를 사용하여 인쇄하였습니다. 형광증백제, 염소계 표백제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청년의, 청년에 의한, 기윤실 청년위원회 청년을 위한

글_ 김현아 팀장

2018년에 신설된 청년운동본부는 올해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펼치기로 작정하고, 청년을 애정하며 청년과 함께 하고 싶은 청년들을 이곳저곳에서 모셨습니다. 청년운동본부의 정체성과 방향성에 대해 고민하고 길을 터주었던 지난 TF모임 이후, 지난 3월 정식으로 청년위원회를 재편하여 11명의 청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들의 이야기와 움직임에 주목해주세요!



미세먼지를 씻어주는 봄비가 내리던 어느 날, 삼각지에 의욕 넘치는 밝은 얼굴의 청년들이 모였습니다. 기윤실 청년운동본부의 싱크탱크이자 모터가 되어줄 든든한 청년위원들입니다. TF 때부터 함께 해 온 6명의 위원들과 새롭게 합류하게 된 5명의 위원들은 오늘 첫모임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다소 어색하면서도 설레는 분위기 속에서 한사람씩 돌아가며 기윤실 청년위원회에 함께 하게 된 계기와 기대, 현재 활동하고 있는 영역과 관심분야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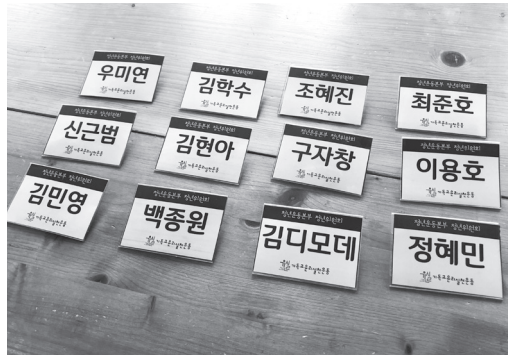
시대와 세대가 요구하는 흐름과 달리 기윤실에서는 청년에 대한 관심과 활동이 없었다, 기윤실과 청년이 어색한 사이가 되었고, 실제로 기윤실 내부에서나 행사에서 청년을 찾아보기가 힘들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대해 풀어보고 싶다, 기윤실이 가진 유산과 자원을 통해 한국 교회 청년들을 지원하고 싶다, 비슷한 고민을 하는 또래들과 청년에 대해 공부하고 배우고 싶다는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최근 기윤실의 맥락과 청년운동본부에 대해 TF에서 다루었던 내용, 그리고 올해 계획되어있는 청년운동본부의 사업과 활동내용을 공유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청년운동본부가 신설된 배경에서 청년위원회는 어떤 정체성으로 어떤 운동을 펼쳐가야 할까 라는 물음에는, 계속해서 함께 그 온도와 정도를 섬세하게 조율하고 적용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후에는 브레인스토밍으로 위원들이 가진 아이디어를 모아보았습니다. 첫 모임이었던 만큼 어떤 사업이나 활동이 결정되진 않았지만, 그 와중에 만장일치였던 제안은 위원들이 먼저 친해지기 위해 야유회를 가자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먼저 서로에 대해 알고 장벽을 허물어야 더 건강하고 자유로운 논의와 활동이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이미 위원들은 조금 더 날이 풀리면 어디든 갈 준비가 되어있는 듯 보였습니다.(웃음)

폭풍 같은 제안과 대화의 시간을 가진 후, 모임을 마치며 오늘의 소감과 앞으로의 기대를 나누었습니다. 청년들에게 공감하는 청년위원회가 되면 좋겠다, 청년으로서, 청년들을 사랑하고 겸손하게 섬기는 위원회가 되면 좋겠다, 계속해서 배우면서 청년들을 더 알아가고 의미있는 활동을 전개하면 좋겠다는 바람을 확인했습니다.

이 날 봄비는 미세먼지를 씻어주었고, 곧 꽃을 틔우고 따스함을 가져다주겠지요. 청년위원회도 그런 존재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청년들을 숨 막히게 하고 마음을 짓누르는 문제들을 함께 해결해가고, 청년들의 오늘에 따스함이 번지게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청년들과 함께 크고 작은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도전하고 실천하며 섬길 저희 활동에 청년들을 사랑하는 분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사)기독교윤리실천운동 청년운동본부 청년위원회 김학수(청년운동본부장) 구자창 김디모데 김민영 백종원 신근범 우미연 이용호 정혜민 조혜진, 최준호 (11명)



자체휴강프로젝트 오픈배움터

<나를 찾는 토요일 #이>

“나를 표현하고 일상을 가꾸는 글쓰기”

글. 김현아 팀장

봄기운이 완연했던 2월의 마지막 토요일. 좋은 날씨에 외출한 사람들로 북적이던 북촌 언덕의 정독도서관 한쪽 교실에서 자체휴강 프로젝트 오픈배움터 “나를 찾는 토요일” 첫 번째 강좌가 열렸습니다. 저마다의 기대로 10명의 글동무들이 모였는데요. 어떤 시간을 함께 보냈는지 그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

“나를 찾는 토요일” 첫 번째 시간에는 10명의 글동무가 함께 했습니다. 본격적인 글 쓰기 연습에 앞서 서로 소개를 하고 참여하게 된 이야기를 나누며 긴장과 어색함을 풀어보았답니다.

이 날의 길잡이 선생님은 김혜진 동화작가님입니다. 먼저 본인의 동화를 소개해주시며 ‘이야기’와 ‘인물’을 만들어가는 방식에 대해 설명해주셨습니다. 주인공의 나이는 몇 살쯤 되었을까요? 무슨 옷을 입었나요? 표정은 어떤가요? 날씨는 어떤가요? 선생님이 던진 질문들에 글동무들 나름의 상상과 경험으로 답하며 인물과 배경과 사건을 만들어갑니다. 서로의 이야기를 돌려보았는데, 무척 흥미롭고 몰입감 있는 이야기들이 만들어졌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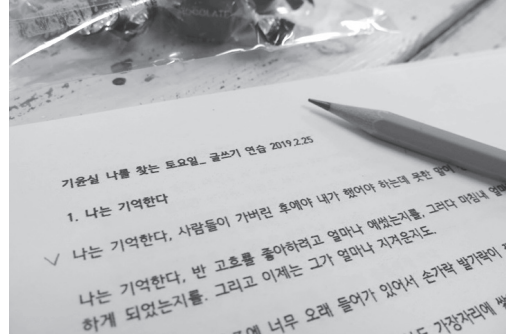


두 번째 시간에는 김혜진 선생님이 진로를 선택하고, 도전하고, 길을 수정하며 겪었던 이야기들을 들려주었습니다. 어떤 중요한 깨달음과 결과물은 반드시 여러 번의

선택, 거절, 수정, 반복의 과정을 거쳐야만 얻을 수 있었다던 말이 기억에 남습니다. 선생님의 이야기를 통해 참가자들은 공감과 위로, 통찰을 얻었다고 합니다.

이후에는 조 브레이너드의 <나는 기억한다.>를 따라 우리의 “나는 기억한다.”를 써보았습니다. 유년기 시절의 어떤 맛, 어떤 사건, 어떤 날씨, 어떤 사람, 어떤 노래를 떠올려봅니다. 이것은 글 쓰는 사람이 자라온 나날을 돌아보며 기억을 끄집어내는 과정입니다. 처음에는 무슨 기억을 써야하나 싶었는데, 하나의 문장, 하나의 기억을 쓰면 연달아 다른 기억들이 회상되더라고요.

마지막으로는 오늘 각자가 집 현관을 나서는 순간부터 이 교실에 오기까지 있었던 일을 써보았습니다. 알랭드보통의 <프루스트를 좋아하세요.>에서 발췌한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선생님 너무 빨리 하지마세요”에 착안한 것인데요. 내가 본 것들, 나에게 다가온 외부 자극들을 더듬다 보니 금세 몇 문단이 써지는 신기한 경험을 했습니다. 나에게서 이런 소재들로 이런 글쓰기가 나오다니!



<나는 기억한다.>와 <자세한 이야기>의 도움을 받으니, 글쓰기에 대한 두려움이 어느새 사라졌음을 깨달았습니다. 시작도 못할 것 같았는데, 준비한 종이가 빼곡히 채워졌습니다. 보통 우리는 상상과 경험이 정리되어야 글쓰기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글쓰기를 시작만 한다면 생각과 상상은 자연스럽게 그리고 더 풍성하게 떠오른다는 강사님의 말을 이해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시간이 되어 강사님을 먼저 보내드리고, 조해진 위원께서 준비해주신 질문지를 바탕으로 소감을 나누었습니다. 최근의 나의 감정과 지금의 느낌은 어떤지, '나를 찾는 토요일'에서 가장 크게 와 닿은 부분과 앞으로 자신과 일상을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 돌아가며 이야

기했습니다. 기대보다 배우고 얻은 것이 많았다는 분, 글쓰기에 대한 선입견과 두려움이 해소되었다는 분, 강사님께서 추천해주신 글쓰기에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책들을 꼭 읽겠다는 다짐을 하신 분도 계셨습니다.



긴장되고 떨리는 마음으로 준비한 '오픈배움터 나를 찾는 토요일' 첫 강좌가 아주 인격적이고 깊이 있는 시간으로 진행되었던 것 같습니다. 탁월한 강사 김혜진 작가님, 그리고 진지한 태도와 흥미로운 이야기들로 모임을 풍성하게 만들어주신 참가자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 [#1](#)

<자체휴강프로젝트>는 기운실 청년운동본부에서 청년들의 자아발견과 길 찾기를 돕기 위해 마련한 프로그램입니다. 2019년 2월부터 7월까지 여섯 번의 '오픈배움터 - 나를 찾는 토요일'을 통해 다양한 강좌가 열립니다. 나를 발견하고 싶은 분, 나를 표현하고 싶은 분, 다른 청년들과 다양한 활동과 대화를 함께 하고 싶은 분은 누구나 환영합니다.

#02 지금은 유튜브시대, 영상으로 나를 말하다. (3/23)

#03 마음아 안녕. 들어다봄, 돌봄. (4/27)

#04 난타 : 소리로 말하고, 소리를 이루다. (5/25)

문의 : 김현아 팀장 02-794-6200 ccmk@hanmail.net

자체휴강프로젝트 오픈배움터

<나를 찾는 토요일 #02>

“지금은 유튜브 시대,
나를 표현하는 영상만들기”

글. 김현아 팀장

지난 3월, 첫 <나를 찾는 토요일-글쓰기 편>이 열린 후, 관심과 반응이 꽤 뜨거웠는데요. 두번째 <나를 찾는 토요일>이 찾아왔습니다. 이제 모두 아시지요? 길지만 의미 있는 이름! ‘자체휴강 프로젝트 오픈배움터! 4월의 주제는 <영상만들기>입니다.

오전 10시. 토요일이면 아직 이른 이 시간에 정독도서관 오디세이교실은 분주합니다.

두 번째 ‘나를 찾는 토요일’에는 다섯 명의 참가자가 함께 했는데요, 주제가 “유튜브 시대, 나를 표현하는 영상 만들기”인만큼, 개인 유튜브 방송을 시작해보려 하시는 분, 일상을 영상으로 기록하고 싶은 분들이 이곳에 모였습니다.



오늘의 길잡이 선생님은 ‘두드림청소년네트워크’ 영상교육팀장이며, 기윤실 청년위원으로 섬기고 계신 백종원 팀장님입니다. 먼저 ‘콘텐츠 기획과 제작에 대한 꿀팁’ 강의로 배움터가 시작되었습니다.

콘텐츠를 만들고자 할 때 먼저 점검하기 위한 다섯 가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 이 콘텐츠를 만들고 싶은가’하는 질문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무엇을 만들 것인가 하는 것보다 먼저 그 질문에 충분히 답할 수 있어야 좋은 콘텐츠가 만들어 질수 있다는 것이지요. 진정성과 간절함에 대한 이야기인 듯 했습니다.



어떤 소재의 영상이 사람들에게 공감과 임팩트 있는 콘텐츠가 될 수 있는지 유명한 유튜브 채널 몇 개를 소개해주며 설명해주셨습니다. 요즘은, 나와 내 주변을 둘러보면 소중한 우리 삶의 에피소드와 일상 무엇이든 콘텐츠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재미있었던 것은 영화 “아이 캔스피크”의 대본을 함께 읽어보는 것이었습니다. 한사람씩 역할을 맡아 연기를 해보면서 이야기를 파악한 뒤, 해당 부분의 영상을 보며 글이 어떻게 영



상으로 만들어지는지, 영상으로 만들어지기 위한 글(스토리보드)은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배워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이후에는 백종원 선생님이 준비해주신 영상을 편집 프로그램을 이용해 직접 편집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참가자들이 직접 영상 중간의 필요 없는 부분을 잘라내기도 하고, 화면 전환, 밝기조정, 자막과 배경음악 삽입 등등 여러 가지 작업을 해보면서 영상 편집에 대한 막연함을 해소하고 실용적인 기술을 익힐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잠시 쉬는 시간을 갖고 준비된 샌드위치를 먹으며 한숨을 돌렸습니다. 참가자들의 집중력과 열정에 네 시간이 훌쩍 지났는데요. 오늘 하루 어땠는지 소감을 나누었습니다.

혼자서 영상촬영과 편집을 해보려 끔꿨었는데, 여기에서 많은 도움을 얻게 되어 감사하다는 분도 계셨고, 유튜브를 시작하고자하는 의욕은 있는데, 실제로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까지 인지 확인했다는 분도 계셨습니다.

이렇게 <나를 찾는 토요일> 두번째 강좌를 잘 마쳤습니다.



멀리 익산과 제주에서 오신 분들도 계셨었는데, 참여해주신 다섯 분께 부디 유익한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영상제작과 편집에 대해 흥미로운 강의로 진행해주신 백종원 선생님께도 감사드립니다. ^^ 

<자체휴강프로젝트>는 기윤실 청년운동본부에서 청년들의 자아발견과 길 찾기를 돕기 위해 마련한 프로그램입니다. 2019년 2월부터 7월까지 여섯 번의 '오픈배움터 - 나를 찾는 토요일'을 통해 다양한 강좌가 열립니다. 나를 발견하고 싶은 분, 나를 표현하고 싶은 분, 다른 청년들과 다양한 활동과 대화를 함께 하고 싶은 분은 누구나 환영합니다.

- #01 나를 표현하고, 일상을 가꾸는 글쓰기 (2/23)
- #02 지금은 유튜브시대, 영상으로 나를 말하다. (3/23)
- #03 마음아 안녕. 들어다봄, 돌봄. (4/27)
- #04 난타 : 소리로 말하고, 소리를 이루다. (5/25)

문의 : 김현아 팀장 02-794-6200 cemk@hanmail.net

2019 청년부채 ZERO 캠페인 참여자 모집

재무지원과 재무코칭 / 교육 등을 통해서 건강한 재무구조를 갖추고
부채 문제를 함께 해결해나가실 청년들을 모집합니다!

모집일정 모집기간 3/19(화) ~ 3/31(일) 발표 4/2(화)

모집인원 10명 내외

모집대상 서울 경기 인천 거주 20~35세 청년 중에 아래의 조건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자

- ① 학자금 대출 3개월 이상 연체
- ② 고금리 부채
- ③ 다중 채무
- ④ 그 외, 부채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분

지원내용

- 무이자 전환대출 (200만원 이하 고금리 전환대출)
- 두 배 통장 운영 (월 최대 10만원, 3개월)
- 희망지원금 (50만원)

*재무상담 및 자조모임 불참 시 지원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활동내용

- 재무상담 2회
(재무적, 비재무적 정보파악 / 자산 및 부채조정 / 지출, 저축, 미래계획 설계)
- 자조모임 3회
(재무교육, 재무코칭, 주제나눔)
- 법률상담, 심리상담, 부채상담, 정부청년정책 안내 등

*재무상담은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사회적협동조합 주관>

*자세한 내용은 기윤실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지원방법 기윤실 홈페이지에서 지원서 작성 및 제출

청년부채 ZERO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4월~6월까지 참여청년 10명과 함께 청년부채 ZERO 캠페인-6차를 진행합니다. 캠페인은 사회적 구조로 인해 무거운 짐을 안고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재무상담 및 교육, 재무지원 등을 통하여서 부채의 악순환에서 벗어나는데 도움을 주며, 이를 통해서 청년들에게 과도한 빚을 질 수밖에 없는 사회적 구조에 대해 목소리를 내는데 있습니다. 캠페인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과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 청년부채 ZERO 캠페인은 아래와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1. 재정지원

구 성	내 용	목 적
고금리 - 무이자전환대출	평균 200만원 이하 지원	고금리 대출 등 가장 취약한 부채 고리 해결
희망지원금	상담 및 더바깽모임 완료 시 50만원 지원	응원 및 격려, 캠페인 참여 독려
두 배 통장	월 최대 10만원/ 3개월 운영	자립을 위한 저축습관 습득 비상금 용도로 활용도록 제언

※ 이후 상환된 금액은 또 다른 청년채무자들을 위한 기금으로 활용됩니다.

2. 상담 및 교육 프로세스

이 름	내 용
재무상담 (2회)	1차 : 재무적, 비재무적 정보 파악, 감성적 교감단계 2차 : 자산 및 부채조정, 지출/저축/미래계획 설계
더바깽모임 (3회)	1차 : 재무 코칭 / 재무 관리법 / 재무 교육 2차 : 재무 코칭 / 자조 모임 (부채, 소비, 꿈) 3차 : 재무 코칭 / 소감 나눔 / 평가
기 타	법률상담/ 심리상담/ 부채상담/ 정부청년정책안내 (원하는 참가자들에 한해서)

· 캠페인 참여 대상은 아래의 1개 이상 해당하는 10명 내외입니다. (서울, 경기, 인천 거주 20~35세 청년)

- ① 학자금 대출 3개월 이상 연체
- ② 고금리 부채
- ③ 다중채무
- ④ 그 외 채무상담이 필요한 상황에 있는 사람.

· 캠페인 일정

과 정	일 시	비 고
모집	3/19(화)~3/31(일)	기윤실 홈페이지 참고
발표	4/2(화), 오후 2시	개별 연락
더바깽 모임	1차	4/8(월), 저녁 7시-9시
	2차	5/13(월), 저녁 7시-9시
	3차	6/10(월), 저녁 7시-9시
재무 상담(2회)	개별 일정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사회적협동조합>에서 진행

※ 세부 일정은 변동 가능성 있습니다.

문의 홈페이지 cemk.org 이메일 cemk@hanmail.net 연락처 070-7019-3757 최진호 간사

후원 (사)기독교윤리실천운동, 109-228746-02504, 하나은행

청년부채 #목소리

어느 신학생의 고민

인터뷰 정리. 최진호 간사

청년부채 ZERO 캠페인(5차)을 진행하면서, 느낀 것은 보통 신학생들의 삶이 녹록치 않다는 것입니다. 참여 청년의 절반 가까이가 신학생 또는 관련 종사자분들이었고(단체특성을 고려하더라도 많은 숫자), 학자금은 당연한 것이고 가정 형편이 어려울 경우에는 고금리부채까지 껴안고 있었습니다.

많은 신학생들이 이러한 고민들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중 한 분의 목소리를 담아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서 거주 중인 20대의 청년입니다. 이번에 청년부채 ZERO 캠페인에 참여 하였고, 이렇게 청년의 목소리를 담게 되었습니다.

파트타임 전도사 생활

부모님은 건강문제와 다른 사연으로 돌아가셨고, 저와 동생만이 가정에 남았습니다. 다행히 약간의 정부지원이 나와서 월세와 생활비가 충당되지만, 아직 대학생인 동생과 신대원을 다니고 있는 제가 가정을 꾸려나가기에는 부족한 금액이었습니다. 동생이 이제 졸업을 앞두고 있고, 졸업 후에 취업을 한다면 생활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 같기는 하지만, 그 전까지는 매월 생활비를 고민을 해야 합니다.

저는 신학대학교를 졸업하고 현재 신대원을 다니면서, 서울지역 교회에서 파트타임 전도사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파트 이기에 많지 않은 월급(80만원)을 받으면서, 동생과 제가 생활하기에는 부족한 액수였습니다. 시간을 쪼개서 아르바이트를 해보려고도 하였지만, 대학원을 다니면서 하기에는 적합한 아르바이트를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학교 내에서 하는 일인데, 자리가 많지 않아서 경쟁이 치열합니다. 이번에 신청하기는 했지만, 제가 되리라는 보장은 없는 상태입니다.

저 뿐 아니라, 파트로 일하고 있는 모든 전도사들의 고민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청년부채 ZERO 캠페인 참여 하면서 저와 같은 신학생들을 적지 않게 볼 수 있었으며, '나만 이런 고민과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대부분이 파트로 일하는 전도사들은 대학원을 다니고 있으면서도 많지 않은 보수로 생활을 해야 하기에 등록금은 가정의 도움 없이는 학자금으로 충당해야하며, 생활 역시 뻘뻘하게 살아야 되는 형편일 것입니다. 저 역시도 그렇게 살고 있고, 대학원을 졸업하고 전담전도사 또는 다른 종일하는 직장을 다니지 않는 이상 저의 형편은 달라지지 않을 거 같습니다.




청년부채문제에 대해서

이 시대 청년들에게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 ‘부채’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날 청년들은 취업과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몸부림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해 취업난을 겪고 그러다가 보니 주변에 어른들로부터 여러 이야기를 듣습니다. “노력을 하지 않아서 그렇다거나 힘든 일을 안 하려고 한다”는 등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렇게 청년들은 지쳐만 갑니다.

차라리 집안이 경제력이 좋아서 받쳐주더라도 하면 좋겠지만 그런 가정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이 지속되다 보니 청년들은 학비, 생활비 등을 대출 받을 수밖에 없고, 그마저도 어떤 학생들의 경우에는 높은 금리를 요구하는 사채를 쓰게 되는 경우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르바이트를 하지만 역부족이어서 대출을 받고 그러다 보니 빚은 해결되는 것이 아닌 점점 늘어만 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같은 경우에는 기초수급자로 생활을 하면서 생활비가 지원 되어서 생계유지가 조금은 괜찮았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동생 앞으로 아버지가 들어놓으셨던 국민연금이 나오는 것 때문에 국가에서는 지급하던 생계비마저 중단하여 버렸습니다. 물론 어느 때까지 국가에서 나오는 것을 의지할 수는 없겠지만 삶을 이어가기에는 정말 쉽지 않은 날들이 많습니다.

이 글을 빌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청년들이 부채에 대한 걱정을 덜 수 있게 사회 구조적 차원에서 개선이 되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정에 대한 교육을 받지 못하여 돈을 올바르게 쓰지 못하는 청년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기에 의무적으로는 어렵지만 재정에 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의 장과 기회가 늘어났으면 이 시대 건강한 청년들이 더 늘어날 것이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미세먼지에 맞서는 그리스도인

2019년 봄, 교회와 함께하는 자발적불편운동

글. 박제민 팀장

작은 벌새가 큰 불은 끕니다.

어느 봄날, 아마존 숲에 큰 불이 발생했습니다. 갑작스런 사고에 동물들은 크게 놀라 모두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몸집이 작은 벌새 한 마리가 도망가지 않고 호수로 날아가 깃털 전체를 물에 적신 다음, 숲으로 돌아와 날개짓을 하며 물을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불은 쉽게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벌새는 용기를 잃지 않고 다시 호수로 날아가 깃털에 물을 적시고 다시 숲으로 돌아와 날개짓을 하며 물을 뿌렸습니다. 숲에서 빠져나와 불타는 숲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던 다른 동물들은 벌새를 보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바보 같은 벌새야. 너처럼 작은 새가 저 큰 불을 끄겠다는 거야? 결국 불도 끄지 못하고 너도 지쳐 죽고 말걸!”

작은 벌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을 뿐이야!” 그리고는 다시 호수로 날아가 물에 날개를 적시고 숲으로 돌아와 날개짓을 하며 불을 끄려고 애썼습니다. 그 말을 들은 다른 새들도 호수로 날아가 날개를 물에 적시고 숲으로 돌아와 날개짓을 하면 불을 끄기 시작했습니다. 한 마리, 두 마리, 그 수는 점점 늘어났습니다.

마침내 큰 불은 모두 꺼졌습니다.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자신들이 살아가는 숲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숲에는 다시 고요함과 평화가 함께 찾아오게 됐다.

미세먼지에 맞서는 그리스도인

위 이야기는 <황금새 크리킨디 이야기>라는 동화의 이야기를 요약한 것입니다. 이 동화를 생각할 때마다 자발적불편운동이 떠오릅니다.

기윤실은 ‘교회와 함께하는 자발적불편운동’ 2019년 봄 캠페인 주제로 “미세먼지에 맞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정했습니다. 미세먼지의 원인을 놓고 여러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한국이든 중국이든 미세먼지의 원인은 화석연료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 캠페인을 시작하자 SNS에 이런 댓글이 달렸습니다. “중국한테나 뭐라고 해라!” 창조세계를 돌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히 전 세계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과 동시에, 어쩌면 먼저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부터 해야 하지 않을까요?

기윤실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가까운 거리는 마스크를 쓰고 걷기를 제안 드립니다. 주말마다 많은 차들이 몰리는 교회를 차량2부제를 실시하기를 제안 드립니다. 누군가는 그러다고 미세먼지가 해결되냐고 비웃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해보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마스크를 쓰고 걷고, 교회에서 차량 2부제를 실시하는 모습을 찍어 SNS에 해시태그(#자발적불편운동)를 달아 올려주시면 추천을 통해 작은 선물을 드립니다. 이번에는 <걷는 사람, 하정우>라는 책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자발적불편운동, 함께 해주세요!

‘교회와 함께하는 자발적불편운동’은 전국기윤실협의회와 함께, 연중 캠페인으로 진행됩니다. 기윤실 홈페이지에서 신청교회로 등록해주시면 저희가 캠페인 포스터를 보내드리니 교회에 잘 게시해주세요. 저희가 제안드리는 캠페인을 실천해주시고 인증샷을 남겨주세요. 그 외 창의적으로 진행하시는 자발적불편운동이 있다면 기윤실에 귀띔해주세요. <http://cemk.org> (070-7019-3755)

먼지를 털고 일어나거라 이사야 5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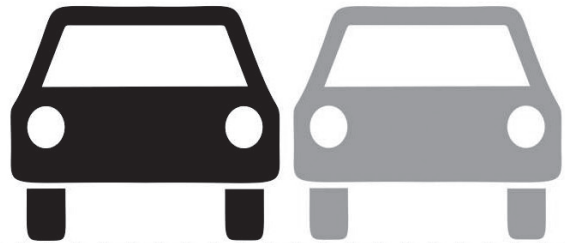
교회와함께하는
자발적불편운동
2019년, 봄

미세먼지에 맞서는 그리스도인

미세먼지 주요 원인 화석연료, 그리스도인부터 해야 할 일은?



그리스도인은 걷고



교회는 차량2부제 실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 인증샷을 올리고 #자발적불편운동 해시태그를 달아주세요.
추첨을 통해 『걷는 사람, 하정우』(문학동네) 책을 선물해드립니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은 개인/단체 회원 여러분의 후원을 통해 이뤄집니다. 함께해주세요!

주소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54길 30, 401호(세대빌딩) 전화 02-794-6200 팩스 02-790-8585

이메일 cemk@hanmail.net 홈페이지 cemk.org 페이스북 @giyunsil 인스타그램 giyunsil

◆ 교회와 함께 하는 자발적불편운동 캠페인은 전국기윤실협의회와 함께 합니다.

삼이라는 '극한직업'에 나선 이들을 위한 응원가

- 영화 <극한직업>에 대한 하나의 시선

글. 성현(기독교영화관 필름포럼 대표, 창조정의원교회 담임목사)



영화 <극한직업> 메인 포스터

어른이 되면서 점점 사라지는 게 있다. '웃음'이다. 조금 일에도 아이들은 잘 웃는다(물론 울기도 잘한다). 어른들은 잘 웃지 않는다. 그런 의미에서 웃음이 목적인 코미

디(comedy)는 어른에게 필요한 장르다. 그런데, '웃음'을 준다는 장르적 특성과 달리 코미디 영화를 통해 크게 웃어본 어른은 드물다. 유쾌함을 위해 만든 영화적 장치들이 유치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2019년 연초, 그 쉽지 않은 일을 영화 <극한직업>이 해냈다. 1,600만 명이 넘는 관객이 <극한직업>이 주는 유쾌함을 경험하기 위해 기꺼이 영화관을 향했다.

해체 위기에 처해 있던 마약반 형사들이 범죄조직을 소탕하려고 잠복근무를 하던 치킨집을 인수한다. 치킨집 운영은 흥내만 내고, 범인을 잡는 데 주력할 계획이었다. 계획이 어긋나기 시작한 것은 팀원 중 마형사(진선규)가 만든 왕갈비치킨의 맛이 뛰어나면서부터다. 손님이 없어 야 잠복근무를 하는데, 손님이 줄을 서며 북적였다. 얼굴이 드러나면 안 되는데, 맛집으로 전국에 소문이 나 버렸다. 그러다 보니 임무에 충실하여 범인 추적에 나섰던 형사가 치킨집 장사시간에 자리를 비워 일손이 부족했다는 이유로 비난받는다. 웃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등장인물들의 대사도 순발력 있게 이어져 웃음을 유발한다. 경찰 반장으로 번번이 승진이 누락되는 남편에게 아내가 말한다. "동네 반장도 세월 지나면 통장 되더라. 나는 최불암 아저씨도 보기 싫어. 볼 때마다 수사'반장'이 생각나서." 그때, 딸이 문을 열고 외친다. "엄마! 나 우리 반 반장 됐어!"



영화 <극한직업> 스틸 이미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어른들이 현실에서 웃지 않는 이유는 뭘까? 그만큼 현실이 고단하기 때문이다. <극한직업> 속 상황은 2019년,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범행 현장에 멋지게 유리창을 깨고 침투하지 못한 채 어설피게 로프에 매달리는 이유가 유리창이 깨지면 형사들이 배상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설정은 오늘날 소방관을 비롯해 각종 재난현장에서 사투를 벌이는 이들의 열악한 처우를 떠올리게 한다. 어차피 조직에서 밀려나면 퇴직금으로 치킨집 차릴 일밖에 없으니 미리 당겨썼다고 생각한다며 임무완수를 위해 자신의 퇴직금으로 치킨집 인수에 나서는 고반장(류승룡)의 모습은 어떤가? 살아남기 위해 사력을 다하고도 노후가 준비되지 않아 사지처럼 보이는 자영업자의 길로 들어서는 무수한 가장의 얼굴이 어른거린다. 여기에 치킨집이 전국적인 프랜차이즈화가 되면서 벌어지는 촌극은 구조적인 병폐가 개인의 역량과 무관하게 벌어지며 희생자를 만들어낼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렇게 21세기 대한민국의 현실과 중첩된 영화 속 상황은 차곡차곡 쌓여가 마지막 결투장면에서 고반장의 외침이 된다. “대한민국 소상공인들, 전부 목숨 걸고 해!” 과연 이 싸움의 초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깨닫게 한다. 그래서일까? <극한직업>의 악인들은 도무지 무서워 보이지 않는다. 주인공들이 진짜로 싸우는 대상은, 우스꽝스러운 악인과는 비교

도 되지 않는 적자생존이라는 냉혹한 현실이기 때문이다. 그곳 악인 몇 사람을 이기는 것보다 내게 주어진 현실을 제대로 감당하며 살아내는 것이 훨씬 어려운 일임을 <극한직업>은 간파하고 있다. 허상의 승리감을 맛보게 하려는 비장함 대신 현실이라는 커다란 산을 넘느라 지친 이들에게 따뜻한 유머로 마음을 다독여 주는 쪽을 택한다.

기독교 사상이 도로시 세이어즈(Dorothy Sayers)는 노동의 가치를 논하며 예술가가 작품에 있어서 고결함을 지향해야 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힌다. “편협하고 근시안적인 인생관이 대중의 욕구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온정 때문에 작품의 완성도를 떨어뜨리기도 한다. 작품에 스며든 부패의 씨앗이 작품을 받아 든 사람들의 마음에 뿌리내리면, 수확의 계절에 두려운 결과를 낳을 것이기 때문이다.” 최근 막대한 제작비를 들인 한국영화가 예상과 달리 흥행에 실패한 것은 영화적 만듦새가 모자라기 때문이 아니다. 마치 대중의 욕구를 알고 있다는 듯이 흥행공식에 짜 맞춘 영화들의 연속이었다. 전반부에 웃음을 주다가 후반부에는 어김없이 울게 만든다. 역사물, 멜로물, 액션물 등 장르는 다양한데, 비슷한 영화 같고, 이미 예측 가능한 캐릭터와 플롯이 전개되면서 분명 처음 보는 영화인데도, 어디서 본 것 같은 기시감(既視感)이 든다. <극한직업> 역시 그런 요소들이 많다. 한국영화에 단골로 등장하는 조폭과 경찰, 인물의 성장 서사까지 준비된 재료는 비슷했다. 그런데 이런 재료들로 흥행공식을 버무리는 대신 <극한직업>은 코미디라는 장르에 충실하며 끝까지 웃음으로 일관한다. ‘이쯤에서 대중들은 이런 걸 원해!’라며 다른 영화에서도 통했던 법칙들이 흘러들어올 여지를 <극한직업>은 허락하지 않는다. 실제 상황이었으면 울며 포기했을 상황들, 남 탓하며 제 살길 찾아가는 게 상책일 순간들에 어김없이 웃음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 그래서 뭘 먹었는지도 모르고 포만감만 가득한 뷔페가 아니라 코미디라는 단품 요리를 제대로 먹은 느낌을 준다.



영화 <극한직업> 스틸 이미지

이성복 시인은 일상에서 사소한 것으로 밀려난 것들이 문학 판을 짤 때는 제일 중요한 것이 되기 때문에 쓰레기통을 자주 들여다보아야 한다고 말한다. 결국 시를 통해 자기 안에 있지만 자기도 모르는 아름다움을 알게 된다는 것이

다. 누가 보더라도 아름답고 칭찬할 만한 것은 찬란한 무대 위에서 모두의 동경을 받기 마련이다. 거기에 상찬의 언어 하나를 보태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다. 무대 뒤 커튼을 찢혀줘야 한다. 무대 뒤편,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자리를 지켜주고, 채워주는 일이 일상인 이들의 삶이 얼마나 고맙고 가치 있는 일인가를 누군가는 일깨워 줘야 한다. 그게 예술이 할 일이고, 신앙이 해야 할 일이다.

영화 <극한직업>은 그렇게 무한경쟁 속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생존과 생의 의미를 찾아 애쓰는 이들에게 당신의 자리가 극한 곳이 맞다며 위로해 준다. 열심히 살았지만, 미래를 보장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무능하다며 타박하는 대신 우리의 내일이 관찮을 수도 있을 거라는 작은 희망을 준다. 영화 <극한직업>의 웃음이 고마운 까닭이다. **한철**

<좋은나무> 구독신청

교회와 사회의 현안에 대한 신선한 관점, 건강한 생각을 제공하는 <좋은나무>를 구독해주세요.
<좋은나무>의 글은 이메일, 카카오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좋은나무>페이지 <https://cemk.org/goodtree/>

<좋은나무>소개 <https://cemk.org/8880/>

<좋은나무>구독신청 <http://bit.ly/좋은나무구독신청>



3.1운동 100주년을 기억하는 그리스도인 연합

글. 박재민 팀장

100년 이 땅에 “대한독립 만세!” 외침이 우렁차게 울렸습니다. 3.1운동은 제국주의에 억눌렸던 사람들의 저항운동이었고, 총칼 앞에서 외쳤던 비폭력 평화운동이었으며, 종교들이 연합해 성사시킨 연대운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지요.

하지만 오늘날 한국 교회는 3.1정신, 즉 저항, 평화, 연대를 온전히 지키고 있는지요? 아니면 3.1운동을 들먹이면서 억압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배타적인 모습만 보이는지요? 2017년 기윤실이 실시한 <한국 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에 따르면, 한국교회와 성도들을 신뢰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로 “지나치게 배타적이기 때문”이란 의견이 유독 많은 것이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의 한 칸에 “복음주의”를 모토로 운동을 펼치는 교회와 단체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모여 3.1운동 정신을 온전히 계승하는, 진정한 기념운동을 하기 위해 <3.1운동 100주년을 기억하는 기독교인 연합>을 만들고 기념예배, 선언문 발표, 대중집담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월 28일, 기념예배와 선언문 발표

기념예배와 선언문 발표는 3.1절 하루 전인 2019년 2월 28일(목) 오전 10시 30분 청어람홀과, 오후 12시(정오) 탑골공원에서 각각 열렸습니다. 예배를 인도한 김정태 목사님(사랑누리교회)은 100년 전 3.1운동에 참여했다가 다치고 죽은 이들이 있다며 이들을 기억하는 침묵기도를 제안했습니다. 기도 후 약 80여 명의 참석자들은 우리 민족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드렸습니다. 테너 방성현 성도는 특송으로 삼일절 노래를 불러주었습니다.

강경민 목사님(일산은혜교회)은 이사야서 45장 1~8절 말씀을 본문으로 “너는 나를 알지 못해도”라는 제목의 설교를 전해 주셨습니다. 강 목사님은 3·1운동은 우리 민족이 자주독립을 외쳤다는 점,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자각에서 비롯되는 민주화 운동이라는 점, 그리고 비폭력을 바탕으로 한 세계평화주의를 주장했다는 점에서 잊히면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난 뒤에는 100년 전 독립선언서가 낭독되었던 탑골공원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여기서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한 한국 그리스도인의 선언 : 경쾌한 발걸음으로 정의와 평화의 길을 걷다.”라는 제목의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3월 19일, 대중집담회 : 3.1운동 100주년에-3.1운동

2019년 3월 19일(화) 오후 7시, 청어람홀에서 “대중집담회 : 3.1운동 100주년에-3.1운동”을 진행했습니다. 기억, 평화, 저항, 연대의 정신을 되짚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총 5분의 발제자들이 각각 15분씩 이야기를 나누고 참여해주신 약 50여 명의 청중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3.1운동과 한국교회”를 주제로 발제한 손승호 간사님(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은 그동안 거대담론으로만 접했던 3.1운동과 한국교회의 이야기에서 조금 벗어나 ‘메타역사’ 개념을 통해 3.1운동에 대해서, 그리고 한국교회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해주셨습니다.

“기억”을 주제로 발제한 김상덕 상임연구원(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기윤실 상집위원)은 여러 사진들을 보여주며 한국 기독교가 3.1운동을 기념한다면서 태극기뿐만 아니라 성조기, 이스라엘기까지 들고 나오는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 교회는 3.1운동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지 되물으며 다음 평화, 저항, 연대를 주제로한 발제자들의 이야기를 경청해달라고 했습니다.

“평화”를 주제로 발제한 문아영 대표님(피스모모)은 폭력과 비폭력, 억압과 피억압은 단편적으로 구분할 수 없고 맥락과 관점이 개입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기독교가 평화의 종교가 되려면 (1)평화와 폭력의 문제가 평면적이지 않음을 기억함으로써, (2)해방이 단일한 사건이 아니라 끊임없는 과정임을 경험함으로써, (3)억압과 피억압의 다층적 관계를 꾸준히 규명함으로써, (4)정치적 존재로서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그 위치를 찾아감으로써, (5)폭력을 예감하고 그에 가담하지 않는 새로운 관계를 만들으로써 가능하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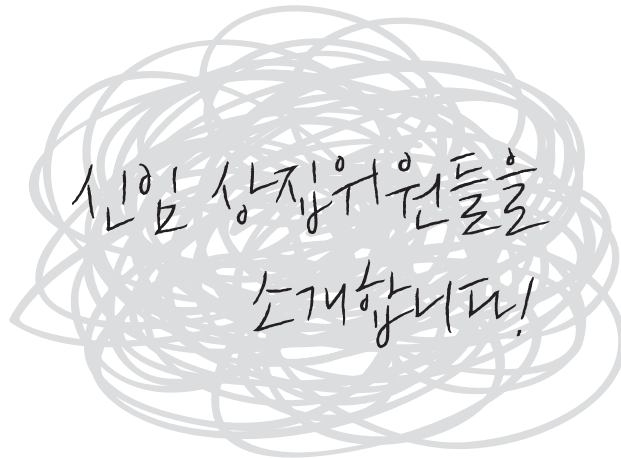


“저항”을 주제로 발제한 바나 아부 즐루프 님은 팔레스타인 인으로 현재 한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바나 님은 팔레스타인이 처한 상황에 대해 발제를 하면서 오늘날 정의를 위한 운동에서 왜 억압받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사라지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전 세계 억눌린 사람들과 연대해서 악에 함께 저항하며, 정의를 비추어야 한다고 가르치는 기독교의 교리에 따라 연대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연대”를 주제로 발제한 손원영 원장님(예술목회연구원)은 서울기독대학교 교수인데 현재 해직 소송 중으로 1심에서 승소하셨습니다. 한 기독교인이 사찰에 들어가서 불상을 마구 파괴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배상하자고 했다가 우상숭배죄는 명목으로 해직되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 오히려 종교들과 평화를 위한 연대 활동에 나서게 되었다고 자신의 경험을 나누어주었습니다.

대중집담회는 다른 3.1운동 100주년 기념행사와는 다르게, 이 기념 국면에서 나타나지 않는 목소리를 대변하고자 노력했습니다. 100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비폭력 평화, 저항, 연대의 정신을 펼쳤던 것이 온전히 계승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런 시간이 꼭 필요하다고 믿었기 때문이지요.

이 운동은 높은뜻하늘교회, 두레교회, 빛과소금교회, 사랑누리교회, 서문교회(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일산은혜교회, 지구촌교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등 7개 교회와 교회2.0목회자운동, 교회개혁실천연대, 기독교법률가회, 기독교경영연구원,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기독교원스헤미야, 기독교청년아카데미, 성서한국, 좋은교사, 청어람ARMC, 크리스천라이프센터,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한국기독교언론포럼, 한국복음주의교회연합 14개 단체가 연합해 진행했습니다. [기획](#)



2019년, 기윤실 상임집행위원회에 새로운 분들이 오셨습니다.

기윤실 운동이 더 활기차게 진행되도록 해주실 신임 상임집행위원 세 분을 소개합니다.

김상덕 (상집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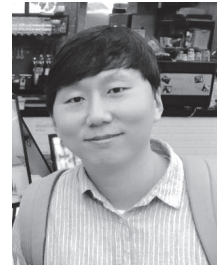
안녕하세요? 저는 학부 때 행정학을 전공하고 뒤늦게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그 계기에는 당시 제가 몸 담았던 한국기독교학생회(IVF)와 기윤실 대학생위원회와 같은 모임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기독교운동들은 제게 신앙과 사회적 책임에 대한 균형적인 시각을 형성하는데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저 또한 기윤실 상집위를 통하여 한국교회가 한국사회 속 사회적 책임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미력이나마 돕겠습니다.

- 보스턴대학교 M.Div.
- 에모리대학교 Th.M.
- 에든버러대학교 PhD in Christian Ethics and Practical Theology 졸업
- 현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상임연구원 재직 중
- 현 광현교회 청년부 전도사

김학수 (청년운동 본부장)

안녕하세요. 기윤실 청년운동본부장 김학수입니다. 한국 교회와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온 기윤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무엇인가를 감당하기엔 너무 부족한 사람이지만, 훌륭한 선배님들로부터 많이 배운다는 마음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 한국기독교학생회(IVF) 전임간사 (2010~2015)
- 현 사단법인 피피엘 대리(2017~)



김진우 (상집위원)



세종과학고 교사로 근무하고 있고, 1995년 기윤실교사모임에서 활동을 시작하여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로 섬겼고 현재 정책위원이자 씬이있는교육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과도한 경쟁으로 씬이 없이 살아가는 학생들에게 학습과 씬이 균형을 이루는 창조질서의 회복이 이루어지길 바라며 한국교회가 이 일에 모범이 되길 소망합니다.

- 현 세종과학고 교사
- 전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
- 현 좋은교사운동 정책위원, 씬이있는교육 운영위원장

회계보고 | 운영성과표 2019 01~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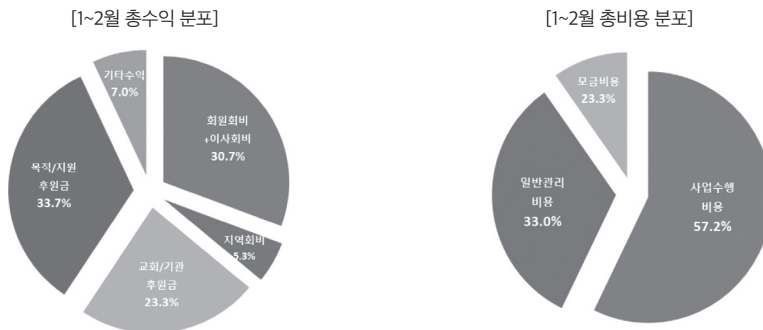
기간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2월 28일까지

과목	공익목적사업
I. 사업수익	64,406,600
① 회비수익(회원회비/이사회비/지역회비)	23,187,000
② 일반기부금수입(교회/기관후원금)	15,030,000
③ 특정기부금수익(목적후원금/지원후원금)	21,700,000
④ 기타수익(사업후원금/등록비/자료판매비/이자수익)	4,489,600
II. 사업비용	61,168,741
① 사업수행비용(사업인건비, 운동본부/자치기구/협력운동 사업비 등)	34,991,345
② 일반관리비용(행정인건비, 사무관리비, 사무처운영비 등)	20,182,743
③ 모금비용(회원관리비, 소식지제작비, 지역회비전달금 등)	5,994,653
III. 사업이익	3,237,859
IV. 사업외수익	2,729,000
① 노동부지원금	2,727,600
② 잡이익	1,400
V. 사업외비용	-0
① 유형자산폐기손실	-0
② 잡손실	-0
VI.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	75,372
VII. 고유목적사업준비금환입액	713,829
수익 총계	67,135,600
비용 총계	61,168,741
당기 순자산의 증(감)	5,966,859

* 2019년 1월부터 2월까지 순자산은 5,966,859원 감소했습니다.

* 2019년 2월 28일 현재 잉여금은 70,012,254원입니다.

* 수익-비용 분포 그래프



비용 분류 주석

1. 사업수행비용은 법인의 사명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 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2. 일반관리비용은 인사, 재무, 감독, 관리 등의 제반 비용입니다.
3. 모금비용은 회원정보관리 및 서비스 소식지, 홍보행사 등 기부금 관련 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2019년 01~02월
후원자명단



2019년 01~02월 후원자명단

1월

개인 후원금 (551명 / 10,952,000원)

(1천) 장서은 장원희 (2천) 권용태 기용서 오동춘 (3천) 김원섭 김은이 남영란 명호중 박정우 손은순 신희선 원종민 정영미 (5천) 강동우 강민봉 강철원 강현주 광종철 권오재 김경숙 김경호 김규성 김근원 김기섭 김기협 김동석 김미혜 김삼숙 김상윤 김상은 김선희 김용미 김인숙 김재근 김정현 김정훈 김주현 김준철 김태훈 김학민 김하나 김홍환 김홍식 김희숙 김희정 나영식 남준일 노광섭 노승아 류종우 문경환 문덕암 박경희 박상돈 박서현 박선이 박은지 박정민 박태규 박찬승 배재수 백인남 백지열 변학식 서효정 성우경 손영일 순현화 송시섭 송종영 송철학 안지현 엄현식 오창섭 우현기 유창수 유혜영 유혜원 유희경 윤성우 윤신일 윤혜관 이국은 이금아 이기용 이동혁 이만동 이상철 이선화 이영광 이용아 이은성 이재현 이종숙 이태희 이필성 이하정 이해영 이혁재 이희열 임영제 장준혁 장창수 전장덕 정경애 정선우 정수덕 조인형 조천권 지상섭 지연섭 최경우 최경석 최영애 최응권 최인영 최종원 최진호 추현우 하현주 한기재 한석환 한유식 한창희 홍선희 홍일선 황택주 황병일 황선영 (7천) 신명호 유영신 (1만) 강명길 강승우 강승철 강윤주 강은경 강은정 강일규 강정규 강진호 강춘근 강호인 강홍구 강희철 고승표 고은정 고정순 공미자 공지태 공현 권명희 권아현 권혜진 기세중 김광환 김대인 김동준 김두희 김령희 김말순 김문수 김병일 김복이 김상범 김상정 김상한 김성천 김성태 김수희 김연기 김영모 김영봉 김영철 김예운 김요열 김윤서 김윤수 김윤진 김은수 김은영 김재환 김정미 김정백 김종호 김준영 김진규 김철성 김태식 김학동 김현태 김형신 김형중 김혜경 김홍주 김효진 남궁설 남제현 노경우 노대용 도낙주 라창호 류성희 문규 문석윤 문정옥 문현주 민영은 박경순 박경준 박기출 박민선 박복애 박상호 박상홍 박성근 박수경 박수정 박영민 박윤정 박은하 박의진 박인에 박재장 박정업 박제민 박종구 박주현 박지연 박진욱 박진희 박철원 박태영 박혜윤 박홍래 배기홍 배복희 배정호 배진화 백현주 변현정 변희중 서동천 서유미 서일향 설성호 손상문 손용기 손은정 손정아 손현성 송미옥 송병문 송준원 송형록 신대희 신은심 신은정 신전수 신창조 심윤아 안보경 안선옥 안선화 안은상 안정은 안학서 양민우 양영두 양지혜 오동근 오미영 오상덕 오세란 오은석 오진선 옥성일 원영대 위국명 유진호 유동원 유영업 유영준 유원욱 유정윤 유정인 유지은 윤나래 윤두선 윤민영 윤양숙 윤태호 이경진 이경천 이근무 이금성 이기선 이덕한 이방욱 이상규 이석형 이선희 이성진 이수정 이수지 이수진 이수호 이슬이 이용훈 이용훈 이운섭 이원영 이월숙 이의현 이인영 이재문 이재민 이재운 이정민 이주환 이지행 이진수 이천화 이충학 이현숙 이현호 이형조 임미정 임소희 임일택 임종록 임종화 임태규 장규선 장기화 장미혜 장영상 장옥선 장혜경 전종갑 정규훈 정동혁 정명혜 정명환 정유선 정유진 정윤호 정일용 정재훈 정해자 정호연 정화선 정화조 조무성 조병진 조용환 조우철 조정미 조태래 주민선 주상희 주선경 지상엽 지상섭 채미자 천무현 천선희 최동우 최병성 최상태 최성수 최성숙 최우석 최용 최정철 최정희 최지영 최지혜 최현지 추진연 태원우 하경열 하만중 하용경 한규환 한상호 한성준 한신영 한이수 한재량 한지연 한형열 허남 허성연 허순자 허효일 홍인기 홍정진 황병구 황성걸 (1만2천) 윤영식 (1만3천) 김은영 (1만5천) 강병관 김명찬 김상인 김태환 박봉순 배정주 신수현 안연희 오성만 정세열 (2만) 구에리 권순홍 금은미 김경미 김동주 김문돌 김민숙 김세진 김신근 김영아 김인선 김정옥 김정원 김종필 김진표 김홍섭 나중주 남재환 도중수 박경라 박득훈 박명곤 박명배 박무용 박성령 박은미 박종명 박종원 박관근 백경조 서인선 손화철 송성현 송인수 신국원 신영현 안병지 양낙홍 온상원 이만열 이명자 이병환 이세령 이수경 이원에 이윤정 이윤현 이종규 임지용 장민규 정명숙 정중목 조현영 차정아 최병재 최삼욱 최영석 최윤선 한병선 홍관수 홍인중 (3만) 강석창 강영안 고정환 김경천 김선옥 김영철 나영진 박선영 박재한 박철 서한홍 성상현 손기식 손병철 손진호 송명숙 송성훈 송택호 안은애 양정석 유성오 유재균 윤영석 윤혁경 이원준 이장규 이준복 임성빈 정민경 정철성 정현철 최혜원 홍대식 (3만5천) 박세진 (4만) 차연주 (5만) 권수경 권장희 김경래 김미숙 김영애 김용근 김인빈 김중환 김혜경 목광수 박종운 박종진 박찬기 송연자 신은정 유혜선 이원근 이원우 이인택 이철진 이희석 정문희 최광사 홍중호 (5만5천) 조홍식 (7만) 성영은 조성돈 (10만) 김일수 김현아 류인복 박원주 박재우 박호용 배종석 서중호 우창록 이상민 이의용 정병모 채홍석 현삼원 (13만) 조현호 (15만) 손봉호 (100만) 전재중 정애주

2월

개인 후원금 (546명/ 8,975,000원)

(1천) 장서은 장원희 (2천) 권용태 기용서 오동춘 (3천) 김원섭 김은이 남영란 명호중 박정우 손은순 신희선 원종민 정영미 (5천) 강동우 강민봉 강철원 강현주 광종철 권오재 김경숙 김경호 김규성 김근원 김기섭 김기협 김동석 김미혜 김삼숙 김상윤 김상은 김선희 김용미 김인숙 김재근

2019년 01~02월 후원자명단

김정현 김정훈 김주현 김준철 김태훈 김학민 김한나 김홍환 김홍식 김희숙 김희정 나영식 남준일 노광섭 노대웅 노승아 류종우 문경환 문덕암 박경희 박상돈 박서현 박선이 박은지 박정민 박제민 박태규 박환승 배재수 백인남 백지열 범학식 서유미 서효정 성우경 손영일 손현화 송시섭 송종영 송철학 신수현 안지현 엄현식 오창섭 우현기 유창수 유혜영 유혜원 유희경 윤성우 윤신일 윤혜균 이국운 이금아 이기웅 이동혁 이만동 이상철 이선화 이영광 이용아 이은성 이재현 이종숙 이태희 이하정 이혁재 이희열 임영제 장준혁 장창수 전장덕 정경애 정선우 조인형 조천권 지연심 최경규 최경석 최영애 최용권 최인영 최종원 최지영 최진호 추현우 하현주 한기재 한석환 한유식 한창희 홍일선 홍택주 황병일 황선영 (6천) 서동진 (7천) 신명호 유영신 (1만) 강명길 강승우 강승철 강윤주 강은경 강은정 강일구 강정규 강진호 강호인 강홍구 강희철 고승표 고정순 고정환 공미자 공지태 공헌 권명희 권순홍 권아현 기세중 김광환 김대인 김동준 김두희 김령희 김말순 김문수 김병일 김상범 김상정 김상한 김성천 김성태 김수희 김연기 김연수 김영모 김영봉 김영철 김에운 김요열 김윤서 김윤수 김윤진 김은수 김은영 김재환 김정미 김정백 김중호 김준영 김진규 김철성 김대식 김학동 김현태 김형진 김형중 김혜경 김혜정 김홍주 김효진 남궁설 남제현 노경오 노낙우 라창호 류선민 류성희 문규 문석운 문정옥 문현주 민영운 박경순 박경춘 박기출 박민선 박복애 박상호 박상홍 박성근 박수경 박수정 박영민 박윤정 박은하 박의진 박인애 박재장 박정입 박종구 박주현 박지연 박진옥 박철원 박태영 박혜운 박홍래 배기홍 배복희 배정호 배진화 백현주 변현정 변희중 서동천 서일항 설성호 성상현 손상문 손용기 손은정 손재아 손현성 송미옥 송병문 송준인 송태현 송형록 신대회 신은심 신은정 신전수 신창조 심윤아 안보규 안선옥 안선화 안은애 안정은 안학서 양민우 양형두 양지혜 오동근 오미영 오상덕 오세란 오은석 오진선 옥성일 원영대 위국명 유건호 유동원 유영준 유원옥 유정훈 유정인 유지은 윤나래 윤두선 윤민영 윤양숙 윤태호 이경진 이경천 이근무 이기선 이덕환 이방욱 이상규 이석형 이선희 이성진 이수정 이수지 이수진 이수호 이슬아 이용훈 이용훈 이윤섭 이원영 이월숙 이의현 이재문 이재민 이재운 이정민 이정은 이주환 이지행 이진수 이천화 이충학 이현숙 이현호 이형조 임미정 임소희 임일택 임종록 임종화 임대규 장규선 장기화 장미혜 장영상 장옥선 장혜경 전종갑 정규장 정규훈 정동혁 정명숙 정명혜 정명환 정왕효 정유선 정유진 정윤호 정일용 정재훈 정호연 정화선 정화조 조무성 조병진 조용철 조우철 조정미 조준호 조태래 주민선 주상희 주선경 지삼영 지상섭 천무현 천선희 최동오 최병성 최상태 최성숙 최우석 최용 최정철 최정희 최지혜 최현지 추진연 태원우 하경열 허만중 허용정 한규완 한상호 한성준 한신영 한이수 한재량 한지연 허남 허성연 허순자 허효일 홍인기 홍정진 황병규 황성결 (1만2천) 윤영식 (1만3천) 김은영 (1만5천) 강병관 김명찬 김상인 김태환 박봉순 배정주 안연희 오성만 윤영관 정세열 (2만) 구에리 김경미 김동조 김문들 김민숙 김세진 김신곤 김영식 김영아 김은유 김인선 김정옥 김정원 김종필 김진표 김홍섭 나중주 남재환 도중수 박경라 박득훈 박명근 박명배 박성령 박은미 박종명 박종원 박관근 백경호 서인선 손화철 송성현 송인수 신국원 신영현 안병지 양낙홍 이상현 유영업 이금성 이명자 이병환 이세영 이수경 이승준 이원애 이윤정 이윤현 이은현 이종규 임지웅 장민규 정원 정중목 조성돈 조현영 조희준 진미자 차정아 최경화 최병제 최삼옥 최영석 최윤선 한병선 홍관수 홍인종 (2만5천) 박세진 (3만) 강석창 김경천 김선옥 김영철 나영진 박선영 박재한 박철 방은영 서한홍 손기식 손병철 손진호 송명숙 송성훈 송택오 엄용환 유성오 유재균 윤영석 윤혁경 이원준 이상규 이준복 임성민 정민경 정철성 정현철 최혜원 홍대식 (5만) 권장희 김경래 김미숙 김용균 김인빈 김중환 류인복 목광수 박종운 박종진 박찬기 신은정 유혜선 이원근 이원우 이인택 이철진 이희석 정분희 최광사 (5만5천) 조홍식 (7만) 성영은 (8만) 강영안 (10만) 김일수 박원주 박재우 박효용 석중호 우창록 이상민 이의용 정병오 채홍석 현삼원 (13만) 조현호 (15만) 배종석 (22만) 이만열 (45만) 손봉호

후원 기관 및 교회 (68곳)

100주년기념교회 가음정교회 경주교회 고양화평교회 과천교회 관악교회 교회개혁평신도연대 공산교회 남군산교회 남대문교회 남서울교회 남서울은혜교회 높은뜻연합선교회 다니엘새시대교회 대림교회 대주산업 대한기독교간호사협회 동부광성교회 동안교회 마산제진교회 망미제일교회 목민교회 목산침례교회 반월중앙교회 별무리교회 보성글로벌(주) 부천평안교회 분당샘물교회 분당소망교회 분당우리교회 빛과소금교회 빛소금교회 서문장로교회 서울광명교회 서울모자이크교회 서울서문교회 서울여대학교교회 서울영동교회 서울영동교회권사회 서울일본인교회 서울중앙교회 서진교회 수원중앙침례교회 시냇가푸른나무교회 양리중앙교회 연약교회 예인법률사무소 오피교회 우리들교회 은혜샘물교회 은혜와영광교회 일원동교회 잠실중앙교회 좋은나무교회 주날개그늘교회 주트새들녘교회 (주)마임 (주)소프트이천 (주)카나 중앙대학교교회 지구촌교회(북동) 지구촌교회(분당) 지비전인터넷서널 청량교회 청운교회 침산동부교회 필그림교회 향성교회

신규/재개회원 | 기윤실 운동의 동역자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월(2명) 송연자 채미자 2월(3명) 강중윤 김은유 박성근

후원과 기도로 동역해주시는 회원님, 감사합니다.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2월 28일까지의 후원자명단을 영수증을 대신하여 신습니다. CMS후원의 경우 전월 미출금 된 금액이 차월에 함께 출금(최대 3개월)되기 때문에 월별 후원금이 회원님께서 약정하신 것과 다를 수 있습니다. (지역기윤실 회원님께서도 각 지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김현아 팀장 070-7019-3756, khash8501@nate.com

활동보고
활동계획#

근거요약

- 02/19(화) 12:00 평신도세미나 회의
- 02/19(화) 19:00 자체휴강프로젝트 기획회의(기윤실 사무실)
- 02/19(화) 19:30 좋은사회위원회 1차모임(삼각지 인근)
- 02/22(금) 07:30 좋은나무편집위원회 회의(서울영동교회)
- 02/23(토) 14:00 자체휴강프로젝트 나를찾는토요일 #01-글쓰기 (정독도서관)
- 02/28(목) 15:00 3.1운동 100주년기념예배(청어람홀)
- 03/15(금) 07:30 제2차 상임집행위원회(기윤실 사무실)
- 03/19(화) 19:00 3.1운동 100주년 대중집담회(청어람홀)
- 03/20(수) 19:00 청년운동본부 위원회(기윤실 사무실)
- 03/22(금) 좋은나무편집위원회 회의(서울영동교회)
- 03/23(토) 10:00 자체휴강프로젝트 나를찾는토요일 #02-영상 (정독도서관)
- 03/27(수) 사무처 분기회 (이태원 인근)

활동계획

- 03/29(금) 19:00 투명한재정운동 회의(기윤실사무실)
- 04/03(수) 12:00 바른가치운동-평신도세미나 회의(CLF사무실)
- 04/03(수) 18:00 찾아가는 자발적불편 예배(광운대 한울관)
- 04/11(목) 19:00 자체휴강프로젝트 점검회의(삼각지)
- 04/11(목) 19:00 자발적불편운동 기획위원회의(기윤실사무실)
- 04/12(금) 07:30 제 3차 상임집행위원회(기윤실 사무실)
- 04/16(화) 18:30 교회사사회적책임컨퍼런스 회의(기윤실사무실)
- 04/18(목) 19:00 세월호 5주기 기억예배(광화문광장)
- 04/20(토) 14:00 평신도 세미나(창비학당)
- 04/25(목) 19:00 청년위원회 정기모임(기윤실사무실)
- 04/26(금) 07:30 좋은나무편집위원회 회의(서울영동교회)
- 04/27(토) 10:00 자체휴강프로젝트 나를찾는토요일 #03-마음건강 (정독도서관)
- 05/25(토) 10:00 자체휴강프로젝트 나를찾는토요일 #04-난타 (동묘 오디세이)

한국 교회를 새롭게 하는 평신도들의 상상력
제1회 평신도 연합세미나

“평신도 신앙의 실패”

종교개혁 500주년을 넘어서는 오늘날, 우리가 사랑하는 한국교회는 안타깝게도 신앙적 개혁의 주체가 아니라 개혁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를 지도해 온 목회자들의 책임도 있겠지만, 교회와 사회에서 신앙의 구경꾼처럼 수동적인 자세에 안주해온 우리 평신도들의 책임이 더욱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한국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활동해온 평신도단체들이 힘을 모아, 한국교회 평신도들의 고민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자리를 마련합니다. 분기마다 모이는 이 자리를 통해 우리 평신도들의 신앙이 바르게 커지고, 한국교회가 칭찬받는 개혁의 주체가 되며,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일시 : 2019년 4월 20일(토) 오후 2시~5시

장소 : 창비학당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로12길 7, 2층
(서교동, 창비서교빌딩)

공동주최 :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기독교법률가회, 좋은교사

주강사 : 이병주(기독교법률가회 사무국장)

패널 : 강영희(좋은교사 회원), 조성돈(기윤실 교회신뢰운동 본부장), 조원익(기독교법률가회 회원)

전국기윤실협의회 소식터

각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윤실 소식을 나눕니다.
전국기윤실협의회가 활동하고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회원님들께서는
각 지역 활동에 관심가지고 참여 부탁드립니다.

부산기윤실

- 1. 청년아카데미 : 성경적 페미니즘**
- 2019년 3월 22일(금) 18시 / 부산 YMCA 18층
- 강호숙 박사 (웨스트민스터신대원)



- 2. 청년아카데미 : 저항하는 그리스도인**
- 2019년 4월 26일(금) 18시 / 부산YMCA 18층
- 강성호 작가

인천기윤실

- 1. 마을공동체&마을목회 세미나**
- 2019년 4월 2일(화) 16시 / 부평 아트센터 2층
- 인천마을만들기 지원센터 활동소개 (윤희숙 팀장)
마을과 함께 하는 교회 공동체 (정재영 교수, 실천신대원)
- 주최 : 인천교회연합봉사단
- 협력 : 논현지역목회자모임, 인천기윤실



- 2. 인천기윤실 페이스북 개설**
- www.facebook.com/cemkincheon
- 3. 인천기윤실 후원자 명단**
- 마포중앙교회, 양송

전국기윤실협의회

지역·실무·연락처·이메일·주소

광주 `고경태 운영위원 / 010-8525-0288 / ktyhbg@hanmail.net / (61140) 광주광역시 북구 석곡월산길36

대구 `노동욱 사무국장 / 010-2018-4116 / nohandsong@gmail.com / (42480) 대구 남구 대령로65 세아타워 5층

대전 `도인호 실행위원장 / 010-8524-3189 / dopriest@naver.com / (34927) 대전 중구 대흥로177, 2층

부산 `가정호 사무처장 / 010-9182-7419 / mento123@hanmail.net / (48730) 부산 동구 중앙대로298, YWCA301호

울산 `오주철 사무총장 / 010-2565-5208 / ojocheol@hanmail.net / (44944) 울산 울주군 언양읍 웃방천2길5, 언양영신교회

익산 `이용호 사무처장 / 010-3996-7023 / iksancemk@naver.com / (54619) 전북 익산시 동서로222 세소망정형외과 2층

인천 `이진오 실행위원장 / 010-8955-2520 / greatc@hanmail.net / (10073) 경기 김포시 김포한강11로275 롯데캐슬아파트 303동 704호

전남 `이광식 사무처장 / 010-3606-6745 / 123kslee@hanmail.net / (59712) 전남 여수시 여서2로51 은현교회

전주 `김윤배 사무국장 / 010-4245-9222 / kyb0191@hanmail.net / (55900) 전북 임실군 신덕면 조월길10-8 삼덕교회

진주 `한영수 공동대표 / 010-9979-1010 / comnot@hanmail.net / (52701) 경남 진주시 순환로528, 원정스카이펠리스 6층, 주님의교회

청주 `홍승표 사무국장 / 010-9452-0214 / hsp0924@hanmail.net / (28521)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용담로81, 2층

(준)정읍 `정종인 집사 / 010-3999-7802 / cibank64@hanmail.net / (56163) 전북 정읍시 충정로229 정읍교차로신문사

(준)제주 `김광종 사무국장 / 010-9744-1477 / hymn4747@hanmail.net

나를 찾는 토요일

3회차 마음이 안녕: 들려다봄, 돌봄

- 때 4월 27일(토) 14시~16시 • 곳 정독도서관 3층 오디세이교실 (안국역)
- 길잡이 정신실 소장 (마음성장연구소 / 저서 : 에니어그램, 연애의 태도 등)

가정 환경, 진로고민과 직장 문제, 우리 사회의 어두움, 사랑과 우정의 관계, 그리고 나 자신으로부터 우리의 마음건강은 종종 위태롭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다가가 찬찬히 들려다보고, 돌보는 시간이 필요해요. 마음의 안녕을 바라는 청년들을 기다립니다.

4회차 난타: 소리로 말하고, 소리를 이루다.

- 때 5월 25일(토) 시간 추후 공지 • 곳 오디세이학교 (동묘앞역 3번출구)
- 길잡이 류주욱 교사 (창원예술고등학교)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유쾌한 활동, 난타에 초대합니다. 소리에 나를 담아보고, 우리가 함께 이루는 소리에 귀 기울여봐요. 스트레스도 풀고, 협동과 조화를 경험하며, 몸과 마음을 이완시키고 순환시키는 시간이 될거예요. 함께 놀아봐요!

〈자체휴강 프로젝트〉는 청년들의 자아 발견과 길 찾기를 돕고자 마련 된 프로그램으로,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에 ‘오픈배움터 - 나를 찾는 토요일’이 열립니다. 자신의 관심과 재능을 발견하고 싶은 분, 생각을 표현하고 싶은 분, 다양한 활동을 경험하고 싶은 누구나 환영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고 www.cemk.org | 청년운동본부 김현아 팀장 010-7900-8501